

## 해리엇을 읽고

어느날 국어시간에 선생님께서 해리엇이라는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자고 하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찰리라는 아기 원숭이가 엄마와 함께 숲에서 살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와 엄마와 헤어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되다.

운이 좋게 찰리는 동물원 주인에게 입양이 되고 사람과 살게 된다.

개코원숭이들의 우리 옆에 살게 된다.

개코원숭이들의 대장 스미스는 찰리가 원숭이처럼 살지 않고

사람과 살았다며 밤마다 찰리에게 돌을 던져 위협했다.

찰리는 우리 밖으로 나갈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본 스미스는 찰리를 더욱 괴롭혔다.

그러자 동물원에서 가장 늙은 거북이 해리엇이 밤마다 찰리를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해리엇이 왜 맨날 여기 있을까? 해서 찰리를

오래된 동물 옆으로 옮겼다. 그리고 어느날 해리엇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해리엇은 자신의 바다 이야기를 찰리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찰리는 해리엇을 바다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바다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해리엇을 무사히 바다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해리엇은 마음 편이 바다에서 생명을 다했다.

난 이 책을 읽고 스미스가 처음엔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찰리를

도와주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했고, 해리엇도,찰리도,모든 동물들이

친구를 잘 도와주는 착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또 해리엇의 말투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도 해리엇처럼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